

얼룩-I 뒷모습의 유령을 쫓는 마음으로

최세미

<얼룩-I> 초반부에 나오는 사진 엽서들은 그야말로 매끈하다. 뽀뽀한 종이에 복사하고 코팅한 것이니 실제로 그렇다. 매끈함이라는 속성을 세련됨이라는 속성에 연결해 볼 수도 있겠다. 매끈하게 대량복사 할 수 있다는 이 기술적 발전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명화, 명소를 사진 엽서의 형태로 지금의 서울로 데려다 놓았다. 사진 엽서들이 모인 곳은 작가가 말하듯 “쁘띠 사이즈 박물관들”로 보이기도 한다. 이곳과 저곳을 막힘없이 쏘다닐 수 있다는 지구촌 사회의 증거로서, 이것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일이다. 물론 이 한 장의 사진 엽서는 실제 그 명화나 명소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거의 전부 탈락시킨다. 그리고 “짜면서 탐낼만한 것”으로서 선택되어 팔릴 때 이제 그것은 아예 다른 무언가로 바뀐 듯하다. 비유적으로 그것의 무게는 이제 아주 가벼워졌다. 무게와 부피를 모두 잃어버려서 중국에는 그것의 그림자마저 사라진 것 같다. 이승의 세계에는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령이 종종 그림자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듯이, 사진 엽서의 명소, 명화 이미지는 그 존재적 영향력이 실날 같다. 실제 대상의 가장 바깥 표면만이 아주 매끈하게 정제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이 유령과도 같은 사진 엽서의 뒷모습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도 그럴 게 뒷장으로 돌려버리면 명화, 명소의 사진은 온간 데 없이 사라지고 흰 여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유령이 그림자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싶다. 정확히 보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는 뒷모습은 없다. 어쩌면

나와 사진 엽서는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어떤 때에 잠깐 마주했었다라도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다.

8k 디스플레이 속 영상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같은 면적에 픽셀들이 더 조밀해져” 완성된 “촘촘한 세계”는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매끈함을 뽐낸다. 그런데 박선호 작가는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돌연 자신의 뒷모습을 드러낸다. 그 뒷모습이란, 사진 엽서가 지고 있는 흰 여백의 뒷장이나 빛나는 스크린을 받치고 있을 뿐인 8k 디스플레이의 뒤판과는 전혀 다르다. 그 온전한 형태와 무게와 부피와 역할을 가진 사람의 뒷모습이 나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작가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화면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작가의 뒷모습은 서서히 작아지며 멀어진다. 나는 작가를 따라 화면 안쪽으로, 공간 안쪽으로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게도 내 몸은 스크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포함시킬 수 없는 그 가짜의 깊이, 나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그 뒷모습에 나는 허무하다. 그러니 그 온전한 사람의 뒷모습도 스크린 속에 있을 때는 유령이 되어버리고 만다. 저승이나 이세계의 유령을 이승의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허무하고 허탈할 뿐이다.

<얼룩-I> 후반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세계의 표면들은 어떨까? 돌의 표면, 나뭇잎의 표면, 물웅덩이 위를 떠다니는 무슨 가루들… 정리되지 않은 거친

것, 그것들에서 요철을 느낀다. 내 얼굴 피부 위에 알 수 없는 뽕루지들, 기미처럼...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탐색할 때 느끼는 울퉁불퉁한 요철들 말이다. 이것들은 티브이 모니터나 사진 인쇄와 같은 매체를 통해 매개되지 않을 때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매개되고 매개되는 탓에 '표면화', '유령화' 되어버린 사진 엽서와 다르게, 이것은 그 뒤쪽으로 온전한 부피와 무게,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의 표면이다. 그렇다면 이 표면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내가 저 멀리 사라지려 하는 작가의 뒷모습을 따라잡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 작가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말을 걸고, 돌아선 작가의 앞모습을 마주하는 것이다. 내가 작가에게 가닿는 순간, 반대로 작가도 나에게 와닿는다. 내가 돌의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어루만질 때, 돌도 말랑거리고 촉촉한 체온의 나의 손바닥을 어루만진다. 모든 것은 상호의 작용으로, 엇갈리지 않는 경험은 가까이에서 서로에게 함께 일어난다.

'얼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그렇다. 지워져야 하는 것... 정돈의 단계, 매개의 단계를 거쳐 매끄러워진다는 것은 얼룩을 닦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앞에서 박선호 작가는 금강산을 폴벨레에게 물린 따가운 곳이라고 기억한다. 이때 금강산은 입체화 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풀숲에서 벌레들에 물려 두드러기가 났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룩-1>은 끝이 난다.



얼룩-1(Stain-1), 2019, 싱글 채널 비디오, 8'29" *비디오 스틸

